

IMO 소식 & 국제해사동향



※ 본 자료는 KMC 활동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01

IMO 소식

IMO, 2025 세계 해사의 날 주제 선정



〈IMO, 세계 해사의 날 주제 선정, 출처: IMO〉

- IMO는 2025년 세계 해사의 날 주제로 ‘우리의 바다, 우리의 의무, 우리의 기회(Our Ocean, Our Obligation, Our Opportunity)’를 선정함.
 - ▶ 동 주제는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IMO 사무총장이 2024년 7월 8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 제 132차 이사회에서 제안하여 승인됨.
-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위한 우리의 오랜 공헌은 IMO의 견고한 국제 규제 프레임워크와 176개 회원국의 기술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함.

국제도 Ian Finley 선장, 국제해사상 수상

- 제132차 이사회는 국제도 IMO 대표부 Ian Finley 선장을 2023년 국제해사상 수상자로 선정함.
 - ▶ Ian Finley 선장은 파나마와 국제도의 대표단으로 1995년부터 IMO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음.
 - ▶ 국제도 정부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IMO 대표부에서 근무한 Finley 선장의 노고에 감사하며 합의와 타협을 도출해 내는 '충실한 일꾼'임을 언급하며 수상을 환영함.
 - ▶ 아울러, 선원의 어려움·훈련·안전 및 복지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두의 의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해사인이라고도 전하였음.
 - ▶ 해당 상은 2024년 말 수상식에서 수여될 예정임.



〈Ian Finley, 출처: IMO〉

김 현 중 영문에디터
kem5651@imkmc.or.kr

제132차 이사회(C 132) 회의 주요 논의결과

- 2024년 7월 8일부터 12일까지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제132차 이사회(C 132)가 개최되었으며, 의제 목록과 중점적으로 논의된 의제는 다음과 같음.

의제번호	의제 제목	비 고
의제 1	의제의 채택	
의제 2	신임장 보고	
의제 3	의사규칙	
의제 4	전략, 계획 및 개편	중점 논의
의제 5	자원 관리	
의제 6	IMO 협약 통합본	
의제 7	다중언어 강화	
의제 8	IMO 회원국 감사제도	중점 논의
의제 9	GISIS 향상	
의제 10	간소화위원회(FAL) 결과보고서	
의제 11	법률위원회(LEG) 결과보고서	
의제 12	해사안전위원회(MSC) 결과보고서	
의제 13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결과보고서	
의제 14	기술협력위원회(TC) 결과보고서	
의제 15	필수 해운항로 보호	
의제 16	외부기구와의 관계	
의제 17	병행회의	중점 논의
의제 18	개발도상국(SIDs, LDCs)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 다자신탁기금 설립 논의	
의제 19	기구가 기능을 수행하는 협약 및 다자간 규정현황 보고	
의제 20	차기 이사회 일정	
의제 21	추가사항	중점 논의

□ 제132차 이사회 주요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실시간 스트리밍(의제 4)

- 이사회는 타 유엔 시스템 기구에서의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경험을 토대로 차기 이사회(C 133) 본회의부터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번 회기중 작업반에서 개발한 관련 기준과 절차*는 제137차 이사회('26.7월)에서 재검토하기로 함.

* Criteria and procedures for live streaming of IMO Council plenary meetings to the public(IMO 본회의 실시간 스트리밍의 기준과 절차)

- ▶ 스트리밍 서비스 종단을 원하는 회원국은 이사회 개시 전 문서로 요청해야 하며, 의제 채택 시(의제 1) 논의됨. 스트리밍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 ① 투표 진행
- ② 사무총장 임명
- ③ 이사회가 실시간 스트리밍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사항
- ④ 실시간 스트리밍 중단 여부에 대한 심의 및 결정 시
- ⑤ 모든 작업반 논의사항

- ▶ 단, 회원국, 의장 및 사무총장은 회기 중 언제든지 상기 예외사항 외에 불가피하게 대외비 논의가 필요한 경우 스트리밍 서비스 종단을 요청할 수 있음.

나. 이사회 문서 공개(의제 4)

- 이사회는 회원국 제출문서와 이사회 결정사항 등의 문서를 즉시 공개하기로 결정함.
- ▶ 다만, 이사회가 사전에 정하거나 회원국 등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해당 결정사항은 기존의 허가 시 또는 3년 후 공개 방식에서 즉시 공개 방식으로 변경된 것임.

다. 의제문서 요약에 대한 제안(의제 4)

- 페루는 의제문서 제출 시 문서 요약(Summary)에 달성목표, 성과 등 전략방향(SD) 관련 정보*를 추가하여 전략계획(SP) 이행 강화를 제안하였으나, 다수 회원국은 문서 작성 프로세스 복잡성, 제안된 지표의 실효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추가적인 행정 업무 부담을 우려하여 해당 제안을 수용하지 않음

* 구체적인 달성 목표, 해운 산업 혹은 IMO 예산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 해운산업과 IMO 및 행정기관 등에 미치는 작업 부하, 이외 고려할 수 있는 대안, 제안된 성과 측정 지표

라. 병행회의(의사규칙 포함)(의제 3, 17)

※ 의사규칙 개정(의제 3)과 병행회의(의제 17) 의제의 높은 연관성으로 인해 두 안건이 함께 논의됨.

- (회의방식) 이사회는 병행회의(원격+대면) 구현을 위한 사무국의 개선사항*에 주목하고, 그간 병행회의 개최경험과 장점을 감안하여 병행회의를 지속하기로 결정함.

* 온라인 참가자 현황 및 문서 등 화면 공유, Committee Room 9 동시통역 기능, 발언 요청자 목록 구현 ('24년 하반기 구현 완료 예정) 등

- (병행회의 지침) 병행회의 지침을 새로 제정할지, 기존 원격회의 지침을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비밀 투표(Secret Ballot)에 대한 원격 참여자의 투명성 및 대표성 등과 관련된 다수 회원국의 우려를 반영하여, 병행회의가 반영된 의사규칙 개정 전까지 기존 방식*대로 회의를 운영하기로 결정함.

* 이사회 의사규칙 및 원격회의 지침을 적용하되, IMO 현장에 대면으로 참석하는 회원국 대표만 투표가능

- (의사규칙 개정) 이사회는 사무국에 IMO 의사규칙 통합본* 초안을 차기 이사회(C 133)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병행회의 방식의 통합 관련 초안 검토 작업을 위한 회기중 작업반 설립을 결정함.

* 총회, 이사회, 위원회 의사규칙 간 조화를 위해 편집상의 상이, 내용상 조화를 고려하여 수정

- ▶ 또한, 기술협력위원회에 타 회의체와 일부 자구(신임장을 제출하는 주체의 범위)가 상이한 의사규칙 9(대표단 및 신임장)를 검토하여, 자구 수정에 관해 결정 내릴 것을 요청함.
- ▶ 병행회의 지속이 결정됨에 따라 의사규칙 내 이에 대한 사항도 반영하여 개정 예정.

마. 성희롱 등 괴롭힘 방지를 위한 IMO 참관인 및 참가자 행동강령 제정(의제 21)

- (의사규칙 개정) UN 행동강령과 IMO 직원 규정을 기반으로 성희롱, 괴롭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표단 간 행동강령 제정안이 승인 및 채택됨.

바. IMO 공휴일 추가(의제 21)

- 문화적 다양성 포용을 위해 이슬람 주요 명절인 이드 알 피트르(라마단 종료와 이슬람 음력 10월 시작을 알리는 명절)와 이드 알 아드하(이슬람교 성지순례인 하지 마무리 및 하반기 축제)를 IMO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제34차 총회 승인 후 시행될 예정임.

송 다 영 연구원
songd89@imkmc.or.kr

IMO 공지

[회의 및 행사 공지]

- (사무국) 제31차 ICAO/IMO 공동 작업 그룹 회의 요약 (CL.4894, '24.7.8.)
 - ▶ 제31차 IMO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 및 해상 수색구조(SAR) 조화를 위한 공동 작업반이 '24.11.4.~11.8.까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됨.
 - ▶ 동 회의는 대면 형식으로만 진행되며, 주요 의제는 수색구조 운영 절차, 기술 및 SAR 시스템 관리 등임.
- (사무국) 제20차 IMO/ITU 해상 무선통신 전문가 회의 개최 알림 (CL.4897, '24.7.11.)
 - ▶ 제20차 IMO 및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해상 무선통신 공동 작업반이 '24.10.7.~10.11.까지 런던에서 개최됨.
 - ▶ 동 회의는 IMO 본부에서 병행회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주요 의제는 WRC*-23의 결과, WRC-27의 초안, 해상 안전 정보와 수색구조 관련 정보의 위성 서비스 전파 등이 있음.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주최해 전 세계의 주파수 분배와 전파통신 분야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회의로, 4년마다 개최됨.

[회원국 공지]

-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불법 곡물 수출에 대한 규탄 (CL.4892, '24.7.8.)
 - ▶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의 곡물이 불법적으로 수출된 사례에 대해 언급함. 특히 SAN COSMAS호가 '23.12월 크림반도 페오도시야 항만에 입항하여 농산물을 불법 수출한 사실을 강조함.
 - ▶ 동 선박은 AIS 시스템을 끄고 입항하는 등 SOLAS 협약을 위반하였으며, 수출된 6,580톤의 곡물은 터키로 운송된 것으로 보임.
 - ▶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불법 곡물 수출행위를 조사하고, IMO 회원국에 불법 선박 입항을 방지할 것을 촉구함.

02

국제해사동향

유럽 내륙 수로에서 자율운항선박 도입 가속화

(출처 :Lloyd's List, '24.6.27.)



〈 자율운항선박, 야라 비르크랜드(Yara Birkeland) 출처: Vard 〉

- 10년 전에 시작된 유럽의 Munin* 프로젝트에 대해 초기에는 회의적으로 보는 관점이 많았으나, 2013~14년 사이에 자율 및 원격 제어 선박의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하면서 관심이 증가함. 현재 유럽에는 무인 자율운항선박이 아닌 승무원이 탑승한 자율운항선박이 많이 운영되고 있음.

* Maritime Unmanned Navigation through Intelligence in Networks: 해상 운송에서 자율 운항 및 원격 조종 기술을 개발하여 선박의 효율성, 안전성, 환경 친화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임.

- ▶ Munin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인 Ørnulf Jan Rødseth는 유럽 내륙 수로에서 무인 자율운항선박은 없지만 승무원이 탑승한 자율운항선박은 많이 운영되는 것을 언급함. 또한 유럽이 내륙수로 자율운항선박 부분에서는 아시아권 나라에 비해 선도하고 있다고 언급함.
- Seafar*의 Marc Holstein은 승무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격 운항의 필요성을 강조함. 내륙 시장에서 경험 많은 승무원의 부족 문제로 인해 선주 또는 기업에게 원격 운항이 더 매력적

으로 보일 수 있으며, 승무원 배치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함.

* Seafar: 선박 원격 운항 및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임. 선박의 원격 운항을 통해 해상 운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며, 선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중점을 둠.

- 가장 주목할 만한 자율운항선박 프로젝트는 2022년에 운항을 시작한 Yara Birkeland(IMO: 9865049, 컨테이너선(120 TEU), 3,200 G/T)임. 동 선박은 현재 3명의 승무원이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무인 자율운항선박으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음.

노근택 연구원
gtro@imkmc.or.kr

후티 반군의 잇따른 해상드론 공격, 홍해에서 상선 안전에 경고

(출처 :TradeWinds, '24.7.16. &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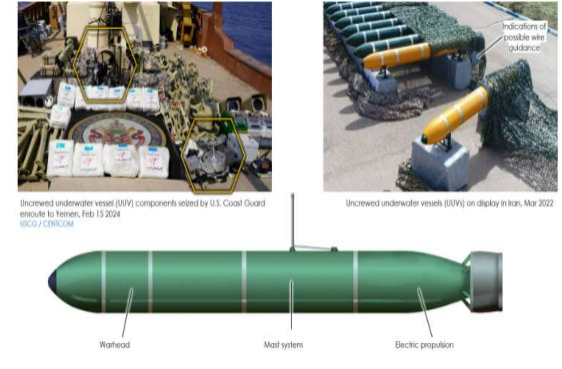
〈침몰하는 그리스 석탄운반선 Tutor호, 출처: Scanpix〉



〈후티반군의 해상드론(USV), 출처: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폭발하는 그리스 유조선 Chios Lion호, 출처 TradeWinds〉



〈이란의 수중드론 전경, 출처:USNI News〉

- 외신 보안 전문가들은 홍해에서 후티 반군이 원격으로 해상드론*을 조종하여 지속적으로 공격함에 따라 해운업에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고 분석함.

* 미 해군은 후티반군이 이란의 기술지원을 받아 해상드론(USV: Unmanned Surface Vehicle) 및 수중드론(UUV: Unmanned Underwater Vehicle)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밝힘

- ▶ 지난 6월 12일 홍해에서 석탄을 싣고 항해하던 그리스 Evalend Shipping사의 82,000 DWT급 벌크선 Tutor호(2022년 건조)가 침몰하고 선원 한 명이 사망한 가운데 나머지 21명 선원들은 미국 항공모함인 아이젠하워호에 의해 구조되었음
- ▶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 United Kingdom Maritime Trade Operations)에 따르면, 길이 5~7m 크기의 작은 흰색 보트가 요르단 아카바를 향해 운항하던 Tutor호의 선미에서 폭발하였고, 알 수 없는 공중 발사체의 추가 공격이 이어져 Tutor호는 결국 침몰함. 이는 후티의 무인 해상드론 공격으로 인한 첫 침몰사고임.
- ▶ 또한, UKMTO는 6월 16일에는 예멘 알무카함 남쪽 40마일 지점에 있는 상선에서 해상드론에 의한 공격으로 인근 해역에서 두 번의 폭발이 있었다고 전함. 그러나 공격받은

선박의 선명 및 행선지는 밝히지 않음.

- 로이터 통신은 7월 16일 그리스 선사의 107,500 DWT급 유조선 키오스 리온(Chios Lion)호를 포함한 3척의 상선이 연이어 공격받았다고 밝힌 한편,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대변인은 해상드론의 공격에 의해 폭발하는 키오스 리온호의 영상을 공개함.
 - ▶ 합동해양정보센터(JMIC, The Joint Maritime Information Center)는 해당 공격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선박의 선장과 선원들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유조선 파손에 따른 기름 유출을 조사 중이라고 밝힘.
- 아프리카 리스크 컴플라이언스(Africa Risk Compliance)의 최고 운영 책임자 맥스 윌리엄스(Max Williams)는 “후티 반군의 최신 해상드론은 상당한 양의 폭발물을 실을 수 있어 선박을 손상 및 침몰시킬 수 있고, 수면 가까이 위치해 있어 선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함.
 - ▶ 그동안 공중드론 방어에 치중했던 미군도 요격이 어려운 해상드론의 공세를 막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향후 피해 규모 확대를 우려하고 있음. 후티 반군이 동부 아프리카 지부티 해안의 우회로를 통해 이란으로부터 드론 제조 물자를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과 이란 간 외교적 마찰도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 ▶ 영국 민간 선박보안업체인 암브레이(Ambrey)는 “후티반군이 미사일과 공중드론 대신 해상드론을 사용한 공격으로 인하여 전략적으로 해상 목표물을 향한 공격이 크게 증가했다.”고 전함. 해상드론은 기존 탄도미사일, 공중드론 공격보다 요격이 어려운데다 크기가 작아 포착이 쉽지 않고 다량의 폭발물을 실은 채 수백 km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어 대응이 쉽지 않으며, 선체 중요부를 직접 타격하는 방식이라 상선들의 피해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우려된다고 밝힘.

이 정 은 전문연구원
jelee47012@imkmc.or.kr